☞ 17면에서 계속

부정부패 중생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

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진리가 어떻게 책으로 다 엮어지겠습니까. 하나하나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다 그것이 경전에 실어집니까, 그게. 이 마음, 마음법이라는 게 그래서 전자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길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도 댁의 집에 뭐가 놓이고 뭐가 놓인 거 다 가보시고, 지금 찰나에 가보시고 오실 수 있겠죠? 그런 거와 같이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혹성도 한찰나에 빛보다 더 빨리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때에 따라선 정신계의 50%를 모르시기 때문에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살아 나가실려니까 힘들고 얽매이고 또는 애고나 업보나,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타파를 못하면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50%를 우리가 밝게 알아야 물질세계 50%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말입니다. 사람이 반이 죽으면 반이 생하고, 반이 생하면 반이 죽고 이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하나 , 우리가 땅속에 있는 금을 처음에 캐서는 금도 아닙니다. 그거를 다 깨뜨려서 물에 다 걸러서 추려서 금 뭉치로 만들어 놔야 비로소 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빛을 낼려면 그거를 다 광을 내서 그만큼 인연에 따라서 손이 가서 광이 나야 그게 금으로써 떼어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전부 그렇게 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열매 열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뚱이가 싹이라면 그 싹은 자라서 열매가 열리기 이전에 꽃부터 피어야 되겠죠? 꽃이 피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냥 꽃 향이 아닙니다. 마음의 꽃! 마음의 꽃이 피어야 바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야 씨도 생기고, 무르익게 되고, 그 무르익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요, 무르익어야 제 나무에서 익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르익어서 완전히 익어야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모두 갖다가 먹게끔 돼 있죠. 제 나무에서 익지도 않은 거를 그냥 따다가 아무리 먹이려고 앨 써도 그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것과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감사함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닙니다. 하다못해 돌뿌리 하나라도, 돌장승 하나라도, 풀뿌리 하나라도, 무정물이니, 식물이니, 동물이니, 곤충이니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우리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배웠겠습니까?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또는 곤충이든 풀포기든, 어느 거 하나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체가 전부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묘한 거 한 가지는 곤충이나 짐승들은 들이고 낼 줄을 몰라요, 사람처럼.

> 어리석은 사람은
> 부처를 구하지만
> 지혜로운 사람은
> 마음을 구하지요

사람은 들이고 낼 줄을 알아 지혜가 있는데, 짐승들은 지혜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냥 들이고 낼 줄 몰라서 자식을 낳아 놓으면 그냥 자기 몸뚱일 자식한테다 다 바치고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그 모습 행동을 해야만 되겠죠.

엊그저께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개 무명을 쓰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사람의 의식이, 혹간에 사람의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짖어도 개 대접만 해주지 사람 대접은 안 해주거든요. 개 모습이니깐 개 대접을 해주지 무슨 다른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난 아무개" 라고 아무리 악을 쓰고 짖어도 그건 "이놈의 개, 왜 짖어." 하고서 개 대접을 해주지 사람 대접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한 번 쓰고 보면 그 습에 얽혀서 사람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사람되기가 어렵죠, 그 습에 얽혀서.

그러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신통(五神通) 통 속을 벗어나서 통을 굴려야만 하겠기에 우린 이 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깨우친 부처님들께서는 다 말씀하시기를 봤어도 봤다고 하지 말고, 또는 알아도 안다고 하지 말고, 타심통(他心通)이니 천안통(天眼通)이니, 숙명통(宿命通)이니 천이통(天耳通)이니 신족통(神足通)이니 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하지 마라. 그 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사대에 모두 통신을 못하고 마음의 전달을 못하고 행을 못하느니라. 그것을 이름해서 누진(漏盡)이라고 했지만 그 모두가 이 마음으로써 마음이 벗어나야 이 모두를 타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처라고 하지만, 깨달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는 바로 목석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발전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니라.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공안(公案)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도량 아닌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중생이다 부처다 따로 볼 게 없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공과 색이 어떠한 것인가? '꽃이 필 때는 색이요, 꽃이 질 때는 공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의 정신계를 공이라고 한다면 물질계를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색과 공이, 즉 몸과 정신이 둘입니까, 어디? 정맥과 동맥이 돌아가듯 어떤 거 하나 떼버릴 수 없는, 그저 둘 아니게 돌아가는 작용일 뿐이죠.

▲질문1: 자비로우신 스님, 먼길 광주까지 오셔서 불자들을 위해서 큰 법문 받들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동안 한마음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평안함을 체득하였습니다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공부 재료로 삼으시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은 공부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의정(疑情)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지지 속에 문민정부의 부정부패의 척결은 정신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놀라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통 세상을 들끓게 하는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은 중생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한마음 공부를 했더라면 그렇게 타락해서 인생을 망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님의 가르침이 새삼스럽게 더욱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해하자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이거니와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참된 욕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욕망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스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진정한 욕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더함도 덜함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둘 아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건 중용으로서 행을 하지, 그냥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팎을 다 겸해서 전자와 전자가 양면에 있다면 한데 이것을 갖다가 붙이면 불만 들어올 뿐이죠.

> 마음을 구해야
> 부처님 마음 알고
> 일체중생 마음도
> 알 수 있는 것

그와 같이 바로 우리가 저절로, 아까 얘기했듯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만 특별히 마음의 향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게 지켜지면서 모든 공덕이 자기한테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수없이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질문2: 과학 문명은 50% 뿐이 안되는데 전체를 채우려면 정신, 마음법, 심성과학을 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계합되지 않고는 완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무엇이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계합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기 이전, 자기의 영혼의 근본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일컬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즉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없듯이 씨가 없다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색과 공을 말했듯이, 그 잠재의식이란 바로 자기의 공(空)을 말하는 거죠. 주인공! 주인공이 바로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불 바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계향, 정향 얘기를 했죠? 그대로 내 탓으로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도 어떠한 불편이 생긴다 하더라도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나는 나대로 지름길을 택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했으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에너지를 배출할 수가 있다. 어떠한 용도든지 전력을 끌어쓰듯이 말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끌어쓰고 크면 큰 대로 끌어쓰듯이 각자가 다 끌어쓸 수 있는 그런 힘을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위 법문은 1993년 4월 24일 광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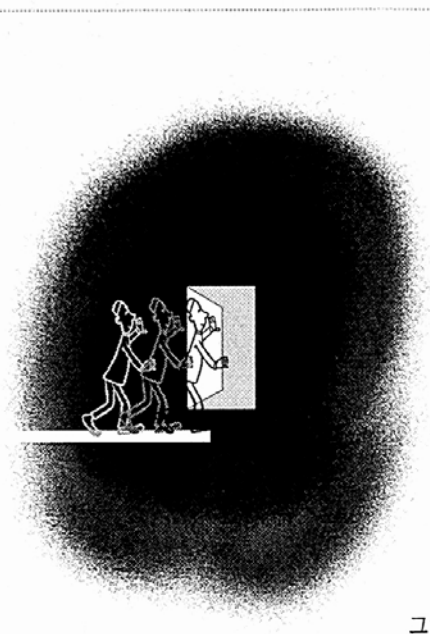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펌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블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선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론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3일 안에 깨닫는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의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 (이북성 조인) 와 보봉사 (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칠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수련내용
本性, 無分別智,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업장소멸, 조상천도,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영혼의 안식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수련 心田 대광사

연등부처님의 미륵진경

이진경의 출처는, 현재 중국 산서평양부 악양현 왕가장촌으서, 어느 날 홀연히 한 우뢰소리가 나고 벽력이 내려치더니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한권의 미륵존경이 나와 천하 백성에게 전하여지게 되었다.

이경을 널리 세상에 알려 공양한다면, 크게 길하고 크게 이로울것이며 일신의 재앙을 모면하게 될것이다.



※ 일반서점. 불교서점 또는 직접 구입도 가능합니다

TEL 053)781-0102

히말라야의 성자
산트 타카르 싱 내한 강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영혼(진아)임을 깨닫고 신을 찾는데 있습니다.
내면의 빛과 소리는 신의 현현체입니다.
신은 생명과 빛과 권능의 대양이며 당신은 그 안의 물 한방울 입니다.

Sant Mat -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

▶ 일 시 : 2002. 5.11 (토) 오후 4시
▶ 장 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
▶ 문 의 : 02-927-7054 / 016-9270-7054

강연 후 빛과소리의 명상법 무료 전수

주최 : 한국KTS명상회

(Know Thyself as Soul : 그대 자신이 영혼임을 깨달으라)
Homepage : http://www.santmat.or.kr